



보도 일시	2023. 3. 3.(금) 11:50	배포 일시	2023. 3. 3.(금) 10:30
담당 부서	콘텐츠정책국 문화산업정책과	책임자	과장 윤양수 (044-203-2411)
		담당자	사무관 김성열 (044-203-2422)

국회와 정부, 기업이 함께 수출 위기 극복 전략 논의 - K-콘텐츠를 수출 전선의 구원투수로 육성, 연관산업 프리미엄 효과 고도화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3월 3일(금), 수출 위기 극복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수출전략 민·당·정 협의회’에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송언석·한무경·이용호·양금희·김미애 의원을 비롯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동래 래몽래인 대표, 김태호 하이브 최고운영책임자, 박기용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등도 함께했다.

< ‘수출전략 민·당·정 협의회’ 개요 >

- 일시/장소: 3. 3.(금) 10:30~11:30 / 국회 본관 245호실
- 참석: (정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송언석·한무경·이용호·양금희·김미애 의원
(민간)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정철희 네패스 회장, 권석준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동래 래몽래인 대표, 박기용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김태호 하이브 COO

참석자들은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와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경기둔화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최근 직면한 수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국회, 기업 모두의 역량을 결집하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 수출증감률(%) : ('22년 12월) △9.7 → ('23년 1월) △16.6 → ('23년 2월) △7.5

** 무역수지(억불) : ('22년 12월) △47.8 → ('23년 1월) △126.5 → ('23년 2월) △53.0

특히, 콘텐츠 산업이 대한민국 수출과 경제를 이끄는 마중물로서, 우리 경제 재도약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K-콘텐츠의 매력을 한층 더 높이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박보균 장관은 지난 2월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2027년까지 콘텐츠 수출 250억 불을 달성하고 세계콘텐츠 4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바탕으로 'K-콘텐츠 수출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K-콘텐츠 수출전략'의 핵심은 콘텐츠 해외영토 개척·확장(Expansion), 콘텐츠 산업 영역 확대(Extension), 연관산업 프리미엄 효과 확산(Effect) 등 3E 전략이다. 또한 이 전략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24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원의 정책금융 조성, '27년까지 해외 원스톱 지원 거점 50개소로 대폭 확충 등 수출 기반도 함께 강화해 나간다.

< 'K-콘텐츠 수출전략' 주요 내용 >

[주요 추진 과제] 3E 전략 - Expansion, Extension, Effect

- ① **(Expansion - 콘텐츠 해외영토 개척·확장)** ▲ 콘솔게임 육성, 해외 마켓 판매 통한 복미, 유럽 등 선진국 신시장 창출, ▲ 현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콘텐츠 재제작 지원, K-팝 공연 등 점점 확대로 수요 창출해 UAE, 사우디 등 '제2의 중동 붐' 선도
- ② **(Extension - 콘텐츠 산업 영역 확대)** ▲ 웹툰 플랫폼과 콘텐츠의 공동 해외 진출 지원, 웹툰 IP 활용 강화, ▲ K-드라마·영화·예능 확산을 위한 디딤돌로서 글로벌 OTT와 전략적 제휴, 국내 제작사의 IP 확보 지원
- ③ **(Effect - 연관산업 프리미엄 효과 확산)** ▲ K-콘텐츠 연계 마케팅으로 제조업·서비스업 등 브랜드가치 향상, ▲ K브랜드 해외홍보관 활성화, K-박람회 개최

[기반조성] K-콘텐츠 수출 기반강화

- ▲ 챗GPT, AI, 메타버스 등 신기술 개발·활용 강화 - 'K콘텐츠 메타버스 월드', ▲ '24년 정책금융 역대 최고 수준인 1조 원 조성, ▲ 해외 원스톱 지원 거점 '27년 50개소로 확대